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할까?

-『돈 키호테』 속 사랑과 유토피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202021664 이예인

<목차>

1. 들어가며
2. 『돈 키호테』 속 사랑과 유토피아
 - 2.1. 오직 꿈만을 사랑한 미치광이, 돈키호테
 - 2.2. 자유를 사랑한 신여성, 마르셀라
 - 2.3. 종교를 향한 열렬한 사랑, 소라이다
3. 나가며
4. 참고문헌

1. 들어가며

사랑이란 무엇일까?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사랑을 지적인 추구라고 말했다. 그는 사랑이 미의 이데아를 보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준다고 했다. 중세에는 신학의 발달로 사랑은 추구 목표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최고의 가치로 추앙받았다는 사실이다.¹

이전 시대에 비해 현대의 여러 생활 양식과 환경이 바뀌었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을 꿈

¹ 박성암. "사랑의 진화와 퇴화." 국내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0. 경기도, p.10.

자면 인간은 계속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인간을 향한 사랑만을 일컫지 않는다. 사랑을 느끼는 주체가 가령 인간을 향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을 향한 사랑, 사물을 향한 사랑, 사상을 향한 사랑 등... 세상에 여러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랑은 인간에게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형성하게 한다.²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유토피아를 형성해야 하는가? 본고는 『돈 키호테』 속에 등장하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 의문에 관한 답을 찾을 것이다. 『돈 키호테』의 등장 인물 돈키호테, 마르셀라, 소라이다가 사랑하는 대상을 각각 꿈, 자유, 종교로 나누고 이들이 사랑을 통해 개인만의 유토피아를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2. 『돈 키호테』 속 사랑과 유토피아

2.1. 오직 꿈만을 사랑한 미치광이, 돈키호테

“대부분 시의 소재로 쓰기 위해 가상의 여인을 만들어 쓸 뿐이야. 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게 해야 하고, 또 사랑을 할 만한 덕과 용기를 가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여자들인 것일세. 그래서 나는 알돈사 로렌소라는 그 알량한 여자가 어떠한 그저 아름답고 정숙하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 일이야.”³

소설 속 돈키호테가 사랑하는 여인은 돌시네아 델 토보소이다. 돈키호테는 어떠한 모험을 떠나더라도 그녀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매 순간 그녀만을 생각하는 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사랑하는 그녀 돌시네아는 독자들에게 있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여인이다. 돈키호테가 수없이 많이 언급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 그녀의 실체는 드러나 있지 않다. 사실 그녀의

² 이정서. "인간의 성과 사랑 표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p.57.

³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키호테1", 창비, 2005, p. 364.

존재 여부는 오직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누구도 그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그녀가 실존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더는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무기를 모두 닦고, 떨어진 투구를 만들어 맞추고, 말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이름까지 정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일은 사랑할 귀부인을 찾는 거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귀부인이 없는 기사는 외사귀도 열매도 없는 나무요, 혼 없는 육체였기 때문이다.”⁴

그녀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돈키호테는 돌시네아라는 인물을 사랑함으로써 기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돌시네아는 그에게 기사로서의 삶을 부여해주는 수단이다. 그렇기에 돈키호테가 모험을 떠나는 모든 목적은 바로 돌시네아라고 할 수 있다. 돈키호테에게 돌시네아란 기사도에 관한 그의 이상이자 꿈이다. 결국, 정말로 돌시네아를 현실 속 실존하는 한 인물로써 인간 대 인간으로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이상을 표상한 인물로써 돌시네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돌시네아는 그간 각종 기사 소설을 읽으며 기사가 되고자 하는 돈키호테의 꿈을 실현해줄 하나의 장치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돈키호테의 유토피아는 돌시네아를 향한 사랑 즉, 그의 꿈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설계된다. 그는 기사도에 관한 열망으로 언젠가는 자신이 격식 있는 기사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 정의로운 기사도 정신을 이어받아 악에 맞서고 사랑하는 돌시네아를 지키는 꿈을 지닌 채 살아간다. 그리고 그가 돌시네아, 그의 꿈을 사랑함으로써 그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니게 된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남들에게 얕보이는 우스꽝스런 미치광이라고 불리게 되더라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유토피아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한다. 이 모든 일은 돈키호테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다.⁵

2.2. 자유를 사랑한 신여성, 마르셀라

⁴ 미겔 데 세르반테스, 앞의 책, p. 51.

⁵ 박현경. "『돈키호테』와 『햄릿』에 나타난 영웅적 꿈과 광기의 욕망충족" 영어영문학58, no.5 (2012), p.5.

돈키호테와 산초가 계속해서 모험을 떠나다 만난 양치기들은 친구의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다. 호기심 많고 오지랖 넓은 돈키호테는 그들에게 이 장례식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그리소스토모라는 사내가 마르셀라라는 여인을 짝사랑하며 속앓이를 하다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 마르셀라의 아름다운 미모로 마을의 모든 사내가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르셀라를 욕했다.

마르셀라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은 그녀에게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의 자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 그러나 그녀는 곳곳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자기 자신을 항변했다.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독립적인 여성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 더불어 그녀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성을 남성들의 전유물로 보았던 당대의 편협한 시각에 굴복하지 않은 그녀는 남성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한다.⁶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둘이 아니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말은 그렇다지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나를 진정으로 좋아한다는 말에 의무감을 느껴 제가 억지로라도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저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고자 이 산과 들의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이 산의 나무들의 나의 친구들이며, 시냇가의 맑은 물이 나의 거울입니다. 여기 이 샘물에게는 내 생각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멀리 있는 불덩이이고, 멀리 놓인 칼이지요. 나를 보고 반한 사람들에게 나는 말로써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⁸

마르셀라는 자유를 사랑한 여인이다. 그녀는 당대의 순종적이어야만 했던 여성들과 달리 자기 자신

⁶ 박철. (2015). 돈키호테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남미연구, 34(1), 125-144, p. 5.

⁷ 미겔 데 세르반테스, 앞의 책, p. 186.

⁸ 미겔 데 세르반테스, 위의 책, p. 187.

의 결정권을 주장하며 자유로운 양치기의 삶을 살고자 한다. 자유를 사랑한 마르셀라의 유토피아는 여성인 그녀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을 권리를 얻는 세상, 그리고 남성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목표를 지키기 위해 생긴다. 마르셀라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었기에 수많은 사람의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간다. 자유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자유로운 세상 속 삶이라는 유토피아를 형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올바르지 않은 타인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

2.3. 종교를 향한 열렬한 사랑, 소라이다

소라이다는 종교를 위해 가족을 내던진 여성이다. 그녀는 본래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그녀 역시 무슬림인 이였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교 가정부를 통해 렐라 마리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소라이다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라이다는 레판토 해전을 참여하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비에르마 대위에게 자신을 스페인으로 데려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고, 경제적으로 그를 지원하여 마침내 비에르마 대위를 석방시켰다.

“아버님, 알라께 말씀드려, 렐라 마리안께서 저를 기독교인이 되게 한 성모이시니 아버님의 슬픔을 덜어드리게 하소서. 알라께서도 제가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빠냐인들이 제 뜻을 바꾼건 절대 아니옵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집에 남아 있고도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제 영혼이 바라는 바를 하루빨리 실행에 옮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 신앙을 나쁘다고 보시는 것만큼 제 생각에는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요.”⁹

소라이다는 결국 그녀를 사랑하던 아버지를 외면하고 스페인에 도착하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⁹ 미겔 데 세르반테스, 앞의 책, p. 640.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종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이다. 소라이다에게 있어 유토피아란 그 어떠한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이다. 소라이다는 종교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이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을 외면하면서까지 스페인으로 떠났다.

종교를 향한 소라이다의 사랑은 감히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사랑은 때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기도 한다. 예컨대 종교를 위해 아버지를 떠나기까지 하는 소라이다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을 비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소라이다의 입장에서 그녀의 선택은 자신이 격렬하게 사랑하는 신앙을 지키고 또, 자신의 유토피아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낯선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인물이다.

3. 나가며

『돈 끼호테』속 등장인물 돈키호테, 마르셀라, 소라이다의 공통점은 그들이 어떠한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꿈을, 마르셀라는 자유를, 소라이다는 종교를 사랑했다.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한 유토피아는 한 인간의 삶 그 자체이다. 남들이 미치광이라고 놀릴지라도, 자신을 맹렬하게 비난할지라도, 가족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될지라도 소설 속에 각 인물들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망설임 없이 하게 되었다.

인간에게 사랑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원동력을 준다. 아무런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저 살아있기에 살아가는 인생은 지극히 수동적이고 비극적인 삶이다. 따라서 목적을 가진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주체적인 인간이 된다. 무엇인가를 향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꿈꾸게 만든다. 그리고 끝내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형성하게끔 한다.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

4. 참고문헌

박성암. "사랑의 진화와 퇴화." 국내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0. 경기도

이정서. "인간의 성과 사랑 표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박현경. "『돈키호테』와『햄릿』에 나타난 영웅적 꿈과 광기의 욕망충족" 영어영문학58, no.5 (2012)

박철. (2015). 돈키호테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남미연구, 34(1), 125-144.